

AMIC & **PETRABRIDGE**
법무법인 아믹 PARTNERS

AMIC LAW & PETRABRIDGE PARTNERS

Newsletter

Volume 06

[Market Insight]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2026년 스탠퍼드 졸업식 축사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2026년 스탠퍼드 졸업식 축하



순다르 피차이(가운데)가 경기장으로 향하는 행렬 도중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 조너선 레빈(왼쪽)과 교무처장 제니 마르티네즈(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문: 구글(Google) 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가 2026년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에서 전한 축하)

레빈 총장님, 마르티네스 교무처장님, 이사님들, 졸업생 대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2026년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두 번째 졸업식 축하입니다. 첫 번째 축사는 말 그대로 제 집 뒷마당에서 했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봉쇄 조치가 한창이던 때였고, 우리는 이렇게 직접 졸업식을 열 수 없었던 졸업생들을 위해 유튜브 졸업식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커다란 불안입니다. 청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공간이 보입니다. 촬영 직전에 제가 직접 자른 머리도 떠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머리만큼은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앞에 펼쳐진 모습은 졸업식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졸업생들이 함께 축하하고, 여러분이 이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곁에서 지지해 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부모님, 친척, 친구,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중요한 순간에 이르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

랍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나라의 다른 지역,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가족들이 언제나 먼 길을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제 부모님께서 제가 참여하는 졸업식에 처음 참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부모님께,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해 준 제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최근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실 모두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꽤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제 성의 마지막 두 글자이기도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오래 남는 조언은 특정 기술이나 시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선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무엇을 추구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로즈 앤 크라운이 문 닫을 때까지 마음껏 즐기십시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그런 시간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졸업식 날 느꼈던 불확실함을 기억합니다. 인생이 아주 큰 순간들의 연속처럼 느껴졌고, 그 모든 순간을 정확히 맞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높은 성취를 이루어 온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성적 하나, 과제 하나, 시험 하나마다 애를 썼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어떤 인턴십을 해야 할지, 이제는 첫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까지 늘 고민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 순간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생물학 시험을 망쳤을 수도 있고, 수업 하나를 빠졌을 수도 있고, 튜바 연주를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은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 학생이었을 때 팻이라는 동급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롱비치 출신이었고, 한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 눈에는 그것이 무척 대담해 보였습니다. 흰색 2도어 혼다 프렐류드 컨버터블도 타고 다녔습니다.

첫 겨울이었던 1월 어느 수요일 아침, 우리는 수업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라스베이거스에 갈래?”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수업을 빼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드트립도 당연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몇 가지 물건을 챙긴 뒤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가려면 산맥을 지나야 합니다. 산을 달리던 중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밖으로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 보았고, 훑날리는 눈의 부드러움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팻은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차를 세워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아홉 시간이 지나, 우리는 지평선 위로 밤의 불빛이 보이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팻은 제게 블랙잭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5달러로 시작했고, 15달러 정도를 더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우리에게는 오래 머물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곧바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수업을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풀어도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에서 수많은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중 정말 중요한 순간,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몇 가지뿐입니다.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일, 가정을 꾸릴지 결정하는 일, 커리어의 큰 방향을 바꾸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결정에는 시간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겉으로만 아주 커 보이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천 번이나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인생을 좌우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첫 직장, 다음에 이사할 도시, 그 로드트립을 갈지 말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의 여정에 질감을 더해 주지만, 인생의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음 속에서 신호를 걸러낼 수 있다면,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영향을 남기는 방향으로 삶을 조금씩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삶에 적용해 온 세 가지 간단한 기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틀린 선택보다 맞는 선택을 더 많이 하도록 도와주었고, 동시에 부담을 조금 덜어 준 세 가지 기준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첫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경제적 불안, 기술 질서의 재편, 정보 과부하가 모두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유난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계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모든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졸업하게 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심어 주신 태도였습니다. 저는 인도의 활기찬 도시 첸나이에서 자랐습니다. 대체로 편안한 삶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한 가뭄을 걱정했고, 물 트럭이 제때 올지 걱정했습니다. 기술도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얻기까지, 텔레비전을 얻기까지, 냉장고를 얻기까지 몇 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꾸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런 제약이 제가 가능한 일을 상상하는 데 한계가 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실리콘밸리라는 먼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스탠퍼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 아버지는 제 항공권을 사기 위해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정확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280번 도로를 따라 처음 차를 타고 내려가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 출신이 아니라면, 캘리포니아는 아주 울창하고 푸른 곳으로 홍보됩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좀 더...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말을 소리

내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홈스테이 가족이었던 제인 얼 부인이 부드럽게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황금빛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낙관을 선택한다는 말로 전하고 싶은 뜻입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갈색을 보았던 곳에서, 그녀는 황금빛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관점의 변화는 제가 주변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장되게 홍보된 것이 울창한 숲만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슈어 속 바다는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입학を決정하기 전에는 한 스탠퍼드 교수님이 이메일까지 보내 아름다운 해변을 장점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루즈 해변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물속으로 힘껏 뛰어들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대서양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스탠퍼드가 ACC에 합류하는 일이 말이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갈색 언덕과 차가운 바다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은 대체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1년 내내 반바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캘리포니아식 낙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제가 스탠퍼드에서 보낸 시간 중 큰 전환점 하나를 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로 가겠다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고, 저는 더 빨리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떠났습니다. 스탠퍼드는 감사하게도 제가 석사 학위 요건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꿈의 끝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 부인 덕분에, 저는 그 갈색 언덕을 황금빛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긍정을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 어려운 일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스탠퍼드를 떠난 뒤 제가 곧바로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저는 제가 제대로 된 길 위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다 구글에 지원했습니다. 2004년에 구글에서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그날은 만우절이었고, 지메일이 출시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제게 지메일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그것이 농담인지 실제 제품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1기가바이트의 무료 저장공간을 제공한다는 일이 매우 야심차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나, 저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다룰 기회가 왔습니다. 그 무렵 인터넷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웹은 단순한 웹페이지에서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브라우저를 훨씬 더 좋고 빠르게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꽤 괜찮다고 믿었던 초기 프로토타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며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열 명 정도였습니다.

그 공감대는 맞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뛰어들 때는 조금 비이성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2008년, 우리는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었던 브라우저를 출시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8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리뷰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사용자 증가가 정체되었습니다.

1년 뒤 우리의 점유율은 약 2퍼센트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였던 스티브 발머가 한 인터뷰에서 크롬을 비웃으며 “반올림 오차”라고 불렀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말은 사기를 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식 긍정으로 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굳이 우리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팀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매우 공격적인 도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빠르게 개선하고 반복했습니다. 다른 곳들이 브라우저를 6개월, 길게는 1년에 한 번 내놓을 때, 우리는 6주마다 브라우저를 출시했습니다. 성공은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일은 대개 훌륭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높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여전히 훌륭한 무언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할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예”라고 답하십시오.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사용하는 세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제게 그것은 언제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더 많은 기술을 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저는 스탠퍼드에 오기 전까지 컴퓨터를 많이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스위트 홈에 들어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1993년이었고, 인터넷은 말 그대로 제 주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인류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도구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크롬북과 안드로이드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왔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인도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만난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면서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고,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의 한 교실을 방문했던 일도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제가 만드는 데 참여했던 제품들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컴퓨팅이 제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길을 바라볼 때,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라는 일,
모든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
사회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일.

대신, 밤늦게까지 룸메이트들과 신이 나서 이야기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졸업생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유능한 졸업생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내년 졸업생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진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수천 개의 순간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 덮인 아름다운 산처럼 멋진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글썄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곳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둘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삶의 황금빛 언덕을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식 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스탠퍼드 졸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십시오! 축하합니다!

[Note: 금번 Market Insight의 원문은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가 2026년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에서 전한 축사(2026 Stanford Commencement Speech)의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법무법인 아미크

임 영 훈 대표변호사 yhlim@amic.kr

박 병 준 대표변호사 bj.park@amic.kr

서 지 원 대표변호사 jwsuh@amic.kr

조 성 민 대표변호사 smcho@amic.kr

주식회사 페트라브릿지파트너스

김 양 태 대표이사 ytkim@amic.kr

조 우 상 이사 wsjo@amic.kr

박 서 영 매니저 sypark@amic.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9 층

Tel. 02 6953 9930

Fax. 02 6442 9930

Mail. amic@amic.kr